

IoT기술 활용 '스마트 하천관리' 추진

(사물인터넷)

국토부, 국가하천 배수시설·수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작 2020년부터 본격 시행 ... 홍수·침수 피해 대폭 줄어든 듯

광주천의 수위를 사물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에 있는 수문 등 배수시설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등 홍수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배수시설 운영방식은 마을이장 등 인근 지역주민을 민간 수문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민간수문관리인이 직접 현장에서 조작(수동 또는 전동)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수문 관리인의 평균 연령이 만 69세에 이르러 인명 사고 위험까지 있는 데다, 사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욱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배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신속한 수문 조작,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수문 운영, 현장

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주기적 수문 점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문 조작에 따른 수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감수량 등 관련 자료와 함께 분석하면 향후 배수시설의 운영을 안전 자동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00억원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10곳 이상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Io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이달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작해 12월 대상을 최종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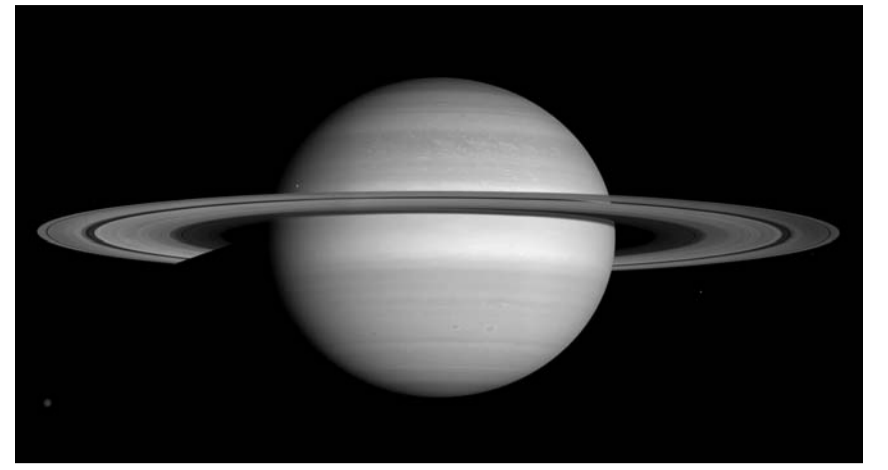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는 종합상황실 구축, 수문 자동화 설비 도입, 폐쇄회로(CC)TV 및 자동 수위계 설치,

수문과 상황실간 통신연결 등 사업 예산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대상 선정에는 배수시설의 노후도 등 사업 타당성, 최근 침수피해 사례 등 사업 시급성, 지방하천 내 배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상황실과도 연계해 하천 수위와 배수시설 작동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등 하천 홍수 대응을 위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하천 내 4000여개의 배수시설을 모두 원격화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홍수 및 침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달의 대왕'은 토성

위성 20개 새로 발견 총 82개 ... 목성 79개 앞질러

토성 주변을 도는 위성(달)이 무더기로 발견돼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달을 거느린 '달의 대왕'이 목성에서 토성으로 바뀌었다.

카네기 과학연구소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천문연맹(IAU) 소행성센터(MPC)는 최근 카네기 연구소의 천문학자인 스톱 셰퍼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토성 궤도에서 20개의 새로운 달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토성의 달은 총 82개로 늘어나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달을 가진 목성(79개)을 앞질렀다.

셰퍼드 박사 연구팀은 하와이 마우나 케아 산 정상에 설치된 스바루 망원경을 이용해 새로운 달을 찾아냈다. 총 20개에 달하지만 지름은 약 5km로 작다.

태양계 최대 행성인 목성은 토성에 가장 많은 달을 가진 행성 자리는 뺏겼지만, 지구의 절반 크기에 육박하는 '가니메데'를 통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을 가진 행성이라는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됐다.

셰퍼드 박사는 지난해 목성 주변에서 1.6km 이상의 달 12개를 새로 확인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차세대 고성능 망원경이 개발되면 토성 주변에서도 이런 크기의 작은 달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달 중 17개는 토성의 자연

과 반대 방향으로 돌고, 나머지 3개는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순행 궤도 달 중 2개는 토성 쪽에 가까이 있어 공전 주기가 약 2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달들은 더 바깥쪽에 있어 토성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관측됐다.

토성 외곽의 달들은 궤도 경사각을 기준으로 이누이트(Inuit)와 노르웨이(Norse), 프랑스(Gallic) 그룹 등 세 부류로 나뉘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달들도 이 세 그룹과 비슷한 궤도 경사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 달들이 아주 오래전에 큰 달의 일부였다가 충돌 등으로 쪼개져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셰퍼드 박사는 "외곽 달이 이처럼 비슷한 그룹으로 나뉘는 것은 목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토성 내 달끼리 충돌하거나 주변을 지나는 소행성이나 혜성 등 다른 천체와 부딪혔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퍼드 박사 연구팀과 카네기 연구소는 목성 주변에서 발견된 12개의 달 중 5개에 온라인 공모를 통해 이름을 붙인 것처럼 토성의 달에 대해서도 이름짓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이누이트와 노르웨이, 프랑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의 이름이 붙여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드로이드폰에서도 PS4 리모트플레이 가능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PS4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7.00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파티 참가 인원이 최대 8명에서 16명으로 증가 ▲리모트 플레이 대응 기기 iOS 기기 및 엑스페리아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5.0 이상을 탑재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확장 등이 있다

리모트 플레이(Remote Play) 기능은 유저 개인이 등록된 PS4를 네트워크를 통해 표시하고 원격 조작 하는 기능이다. 애플리케이션 'PS4 Remote Play'는 PS4의 화면을 모바일 기기에 표시하고 화면 위에 띄워진 컨트롤러를 이용해 실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헤드셋 없이 스마트기기의 마이크 음성 채팅이 가능하고 키보드 입력은 보유한 기기 설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패드 조작보다 편하게 문자 입력 및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PS4는 윈도우와 맥 등의 PC 리모트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휴대기기의 경우 소니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기기만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8일 업데이트로 안드로이드 기종도 리모트플레이가 가능해졌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리모트 플레이 중 컨트롤러 표시 및 화면 방향 고정 기능이 추가된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Mac에서 듀얼 소크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리모트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PUBG2019 배틀그라운드 토너먼트 대회'에서 선수들이 CRG5 모니터를 활용해 게임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시장 세계 1위

출시 4년도 안 돼 점유율 17.9% 기록 시장 주도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00Hz 이상) 시장에서 금액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 포인트 상승한 17.9%의 점유율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게이밍 모니터를 처음 출시한 이래 4년도 안 돼 1위에 오른 것이다. 고해상도(QHD, 2560×1440 이상)와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카테고리에서는 올해 상반기 각각 30%가 넘는 점유율로 2위 업체와 약 2배 격차를 벌리며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게임 콘텐츠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성능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몰입감이 장점인 커브드 모니터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제품 구매 시 필수 고려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출시한 'CRG5'는 '240Hz 래피드커브' (RapidCurve™) 기술과 1500R 곡률의 커브드 스크린을 탑재한 제품으로 고사양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ES 2019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CRG9' 49형은 게이밍 모니터 최초 듀얼 QHD 모델로, 32:9 화면비, 1800R 곡률의 광시야각 패널이 적용된 고가의 제품임에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IDC는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지난해에는 약 500만대 규모였으나, 2023년까지 1000만대 수준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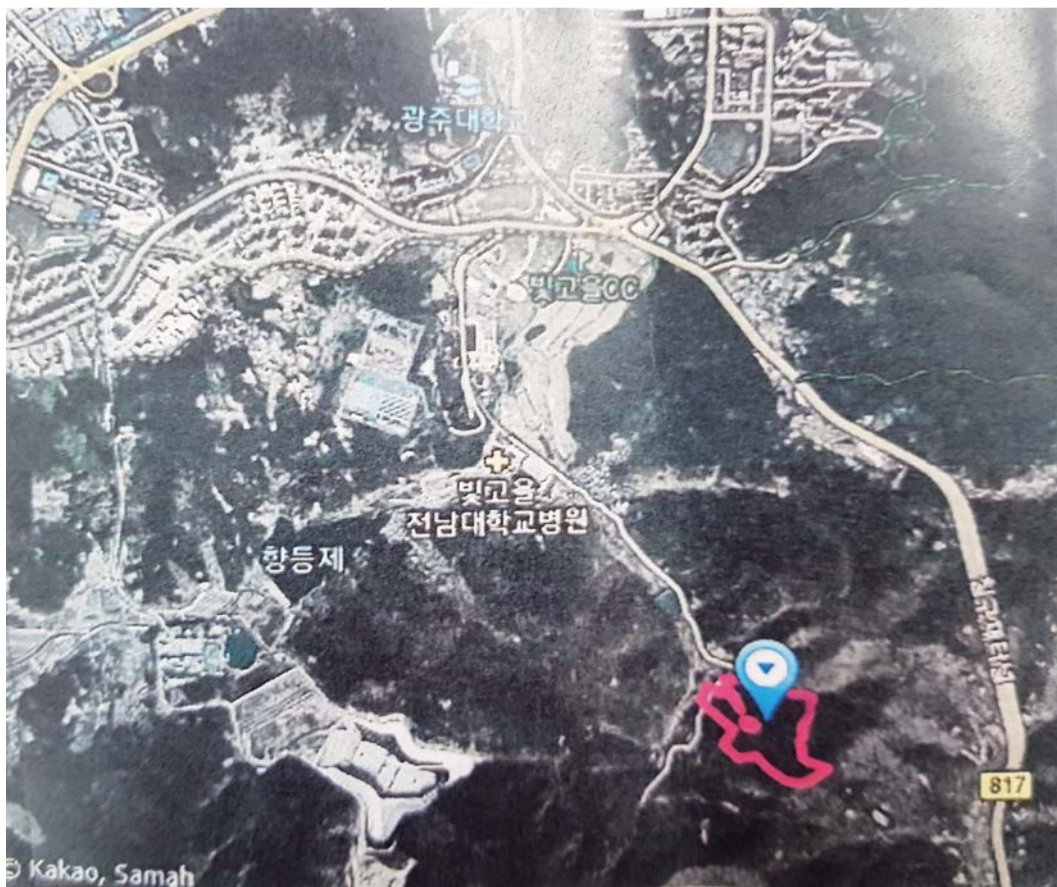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카톡으로 이메일까지 ... 다음달 '카카오메일' 출시

카카오는 이메일 서비스 '카카오메일'을 11월 베타(시험) 버전으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kakao.com'을 도메인으로 하는 카카오메일은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에서 이메일 수신·발신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메일을 정리해주는 스마트 분류함 기능도 갖췄다. 카카오는 새로운 메일 서비스 출시에

앞서 이용자가 원하는 메일주소를 먼저 신청받는다. 오는 22일까지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메일' 아이콘을 눌러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메일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